

새만금 에너지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나선다

전북테크노파크, '공동연구장비 활용·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수혜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합단지 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TP는 단지 내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연구장비 활용 및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과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두 분야로 운영된다.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은 전북TP가

보유한 연구·시험 장비와 실험시설을 기업 수요에 맞춰 개방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고가 장비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도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기술개발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문제를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연계해 해결을 돕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제품 고도화와 개발 기간 단축, 시장 대응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TP는 2026년도 '에너지

지특화기업 지정'을 준비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교육도 병행한다. 지정 절차와 평가 기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지역 내 에너지특화기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에너지특화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평가를 거쳐 지정되며, 매년 10~11월 공고가 이뤄진다. 선정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과 시험·인증, 전시회·기업설명회 참가 등 연간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

를 가산과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공동연구장비 활용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은 2026년 9월 4일까지 상시 모집으로 진행되며,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전북T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합단지의 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공동연구장비 개방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내 에너지기업 경쟁력 제고와 에너지특화기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장년경력지원제' 본격 시행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에 일 경험·기업에 인재 채용 기회 제공

전북중장년내일센터(센터장 이명숙)는 5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와 전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장년경력지원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장년경력지원제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경력 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 중장년에게 △현장 실무경험 △ 직무 멘토링 및 마인드 교육 △디지털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직무

적응력을 높이고 재취업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기간은 1~3개월이며, 참여 중장년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기업에는 참여자 1인당 최대 4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참여 대상은 경력 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미취업 중장년이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북센터는 전북 소재 기업과 중장

년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 '경력지원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참여 요건, 지원 내용, 운영 절차 등을 안내하고, 기업과 우수 인재 간 채용 연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숙 센터장은 "중장년에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해 개인의 성장과 재도약을 돕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은 4일 전북본부에서 '2026년도 농협 비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북농협, 농협 비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4일 전북본부에서 '2026년도 농협 비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백낙진 금마농협 조합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협의회로, 회원 조합장과 농협경제지주 양국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해 양국사업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해 협의회 운영 방향과 쌀 수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쌀 적정 생산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백낙진 협의회장은 "지난해는 폭염

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업이 힘든 해였지만, 쌀값 회복으로 농가들의 시름을 덜 수 있어 다행이었다"며 "앞으로도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정 활동에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정부가 수급 조절용 벼, 정부양곡 대여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음"이라며 "전북본부도 농축협과 농업인에 대한 올바른 지도·지원,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 실천과 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양곡사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6기' 12일까지 모집

전북은행이 오는 12일까지 '2026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6기'를 모집한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서포터즈 6기를 선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도내 대학 캠퍼스와 관광 명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활동하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전북은행 브랜드 홍보에 나선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외국인 유학

생도 선발 대상에 포함해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활동 기간 중 4학년 2학기 재학 예정자이거나 타 대학활동과 중복 참여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 서포터즈에게는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와 최종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별도의 포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완주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27억원 금융지원

전북은행이 완주군 소상공인을 위한 27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전북은행은 완주군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완주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완주군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와 소비 촉진을 위해 1억 원을 특별 출연

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27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상담 접수는 4일부터 시작했다.

잎 전용 고추 '원기2호' 제품화 확대

농촌진흥청, 혈당 상승 억제 효과 우수... 차·국수 등 상품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우수한 잎 전용 고추 '원기2호'의 제품화를 확대해 잠재한 고추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고춧잎은 예부터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이는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분해·흡수하는 과정을 억제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인히비터(AGI)' 성분 덕분이다. 해당 기전은 제2형 당뇨병 치료 의약품에도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05년부터 850여 점의 고추 유전자원을 분석해 2020년 잎 전용 고추 '원기2호'를 개발했다. 이전에 개발한 '원기1호'보다 AGI 활성이 3배 높으며, '원기2호' 고춧잎의 AGI 활성은 74.8%로 일반 고춧잎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실험 결과 공복 혈당은 13%, 혈장 인슐린 농도는 24% 감소했으며, 인슐린 저항성 지표(QUICKI)는 3.8% 증가하는 등 11개 당뇨 관련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해당 연구 성과는 2022년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원기2호'의 품종 보호등록(제10322호)과 특허등록(제10-2705572호)을 마쳤다. 특허는 AGI 고활성 고추 '원기2호'의 고



춧잎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대사성 질환 예방·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현재까지 품종은 8곳에, 특허 기술은 8개 업체에 이점을 알렸다. 이를 기반으로 차·분말 제품을 비롯해 고춧잎 차(음료), 누룽지칩(과자), 국수, 두부 등 10여 종의 가공식품이 상품화됐다. 특히 '원기2호' 고춧잎은 고온·건조 조건에서도 혈당 상승 억제 활성이 유지돼 가공 적합성이 높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4.8%에 달한다(대한당뇨병학회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4'). 동시에 고추 재배면적은 2011년 4만2,574ha에서 2025년 2만5,743ha로 15년 새 39.5% 이상 감소해 산입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원기2호' 제품화 확대는 일상적인 체소 섭취를 통해 혈당 관리를 돕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동시에, 부산물로 여겨지던 고춧잎을 고부가가치 원료로 전환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R&D 전담조직 설립 지원' 참여 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를 위해 'R&D 전담조직 설립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R&D 전담조직 신규 설립 및 재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다. 총 지원 규모는 1,080만원으로, 과제당 최대 60만원 이내에서 18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R&D 전담조직 설립과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다. 기업은 2회 이상 컨설팅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전문연구사자 설립 및 재설립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또는 도외 중소기업 중 전북 지역에 R&D 전담조직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립하거나 재설립해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다. 다

만 도내 기업이 타 시도에 전담조직을 설립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동일 사업 수혜 기업은 3년이 경과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은 전북TP 홈페이지 공고 및 상담을 거쳐 기업이 R&D 전담조직 인증을 취득한 뒤,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비는 인증 취득 후 사후 지급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후 R&D 수주, 고용 창출, 연구소 활성화 등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신청 기업은 R&D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법인 지정 온라인 교육(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과정, 2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공고 및 접수 기간은 3월 3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